



4면

전주시·공기업·지역대학
미래인재 함께 키운다

전주매일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음 7월 20일) 제26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받는다

10만6000여 농가 총 637억... 추석 전 지역화폐로 올 첫 결실 맺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 국가 직불제 단가도 상향... 선순환 경제구조 기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 대표 사업으로 선정된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전에 지급한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도정 제1우선과제인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을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 정도를 도내 총 10만6000여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상품권, 카드 등)를 지급해 약 637억원이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게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군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11만 4,043농가가 접수한 가운데 자격조건에 미달한 7,886농가를 제외한 10만 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도와 시군은 올해 공익수당 지급액이 총 637억원에 달해 당초에 확보한 613억 대비 24억원을 초과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대표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를 거쳐온 등 농업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아 온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 첫 결실을 맺게 됐다.

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감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자긍심 부여와 함께 재난극복에 위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가 직불제인 쌀, 밭, 조 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통합되면서 지원단가가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함께 올 연말까지 국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직불성 사업 지원

금 약 4,845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직불성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 직불성 사업 지원규모는 2019년 통계청 발표 도내 9만 5천 농가 기준을 비교할 때 농가당 평균 511만 4천원이 지원되는 바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기초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지급 브리핑을 열고 참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농민수당, 미래 가치투자 첫 걸음"

송지사 "제도 조기 정착 철저한 관리 집중" 피력

전북도가 지난 4일 농민공익수당 첫 지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생태문명의 동력이자 인류의 공공재인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을 이제 내딛게 됐다"면서 "농민공익수당을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와 함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양대축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찾아진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사태는 문명의 부작용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필요로 한다"면서 "농민공익수당과 같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은 결국 그 이익이 도민 모두와 미래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2년여 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제도화를 이끌어 낸 농업인 여러분과 전문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제도의 보완과 발전적 진화 과정에



서도 꾸준히 노력해 전북도를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함께 만들어갈 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민의

지원자격 및 이행조건 엄격 관리, 정책 파트너인 14개 시군 농민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업, 모니터링을 지속해 농민공익수당의 도입 취지를 확실히 지키겠다"면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보완책 마련에도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 수당을 추석 전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대해 송지사는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든 농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결정"으로 "추석 전까지 차질 없이 지급해 제도의 체감도와 효과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감사관 김진철·대외협력국장 한민희

비서실장에 고성재 임명

전북도는 7일자로 신임 감사관에 김진철, 대외협력국장에 한민희 비서실장에 고성재씨를 임명했다.

김진철 감사관은 부안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



김진철



한민희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5일간 확진 1명... 인구 10만명 당 환자 발생률 전국 최소

전북도는 지난 4일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8.23~9.6)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9월 6일로 종료되나 N차 감염이 전국적으

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1천명 이상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공공민간 재택근무 실시 등이다.

전북도의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4일까지 88명으로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8월 15일까지 43명이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 45명이 증가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된 8월 23일 이후 신규환자는 20명이 발생해 인구 10만명 당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소(4.79명)를 기록했다. 최근 5일 동안은 신규 환자가 1명으로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도 이전에 비해 50%가 감소(거리두기 전 163개소→72개소)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유호상 기자



고성재

고 감사원 국방 감사관 제2과에서 근무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전주 해상고와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청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고성재 비서실장은 군산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청 비서관에서 근무했다.

/유호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